

요즈음 담배를 피우는 성별을 비교해보면 남자보다 여자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우는 장소도 너무나도 대담해졌습니다. 나이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가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남자 여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숍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보수적입니다. 신문에서 읽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그 옆에서 연기를 맡는 사람의 몸에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담배는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로 자연은 사람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도 무리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보다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피우는 사람도 하나의 자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막을수는 없지만 적당히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